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전남 지역 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

전남 외국인 5만3649명...조선업 몰린 영암 '최다' 외국인 범죄 하루 2.5건 발생...지역민 불안 커져 순찰 강화·조명 설치...지자체·경찰 치안 확보 총력

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번기가 시작되고 최근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전남 외국인 5만3649명...근로자 유입 늘어

24일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시스템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올해 1월 기준 총 5만364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만9956명(37.2%)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전남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이나 농업, 축산업, 건설업 등 비전문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 전남에 찾아왔다는 얘기다.

특히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늘면서 대불산단지가 들어선 영암군 삼호읍 일대는 외국인들이 대거 모여 거주하고 있다.

영암에는 전남 전체 외국인의 18.00%에 달하는 965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영암군 전체 인구의 18.4% 수준으로, 길거리 10명 중 2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이처럼 영암 삼호읍은 베트남과 네팔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 동남아 음식점과

마트, 외국인 전용 클럽 등 관련 상업이 커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최근 시간 한번에 우루루 쏟아져 나오는 이들을 보면 마치 동남아 같다”고 말할 정도다.

◆외국인 범죄 하루 평균 2.5건...치안 우려 나와

이처럼 전남 내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경찰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전남지역 내 외국인 범죄는 824건이었다. 하루 평균 2.3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올 1월 한 달에만 78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일평균 2.5건의 사건이 있었다.

올 1~2월 외국인 범죄를 혐의별로 분석한 결과 폭행이 25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5배 급증했다.

사기도 같은 기간 11건에서 16건으로 늘었고, 도박도 4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은 15건에서 13건, 무면허 운전은 19건에서 1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

전히 발생 빈도가 높았다.

◆지자체·경찰 치안 확보 노력...불안 해소 가능할까

외국인 유입이 늘고 이들의 범죄 행위도 잇따르면서 지자체와 경찰도 치안 확보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비율이 높은 영암군은 범죄예방 효과와 원활한 방범 활동을 위해 대불주거단지 도로와 공원 조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도 외국인 유입과 유흥시설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경찰 한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위력 순찰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튤립과 추억을 휴일인 24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포시즌스 가든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튤립 꽃길을 거닐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냉·온탕 날씨에 꽃도, 사람도 없다...전남 꽃축제 어찌나?

일주일 앞당긴 구례 벚꽃·여수 진달래 축제 이달 반짝 추위에 개화 직전 꽃망울만 맺혀

올해 전남 지역 꽃 축제장이 들쭉날쭉한 날씨로 벚꽃·진달래 개화가 늦어지면서 꽃 없는 아쉬운 축제가 됐다.

23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2024 구례 300리 벚꽃축제'는 구례 서시천 체육공원과 문척면 일대에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열린다.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인 전남 여주시 영취산에서도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제32회 진달래 축제가 개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기후변화 등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꽃축제를 열었다.

하지만 이달 반짝 추위가 이어지면서 축제 시기에 맞춰 꽃이 채 피지 못했다.

구례는 섬진강 변 120km 파라는 벚나무 터널이 명소로 꼽히고 있지만 대부분 꽃이 피지 않았다. 여수도 진달래가 개화 직전으로, 꽃망울만 맺혔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23일 전남 구례군 2024 '구례 300리 벚꽃축제'장에서 벚꽃이 채 만개하지 못한 모습(왼쪽)과 구례 섬진강변을 따라 만개한 벚꽃(오른쪽). (사진=독자, 구례군 제공)

기상청은 이달 꽃봉오리가 열리는 발아(發芽)시기에 기온 변화 폭이 커 평년보다 개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상청 계절 관측목 벚나무 발아 시기는 평년보다 4~7일 늦었다. 올해 광주(13일)보다 늦은 지난 17일, 여수도 일주일 늦은 21일에 벚나무가 발아한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주말은 4월 중순 안연한 봄 날씨를 보였지만 평일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월 늦겨울 추위를 보이기도 했다”며 “꽃 발아·개화 시점에 기온 변화 폭이 크거나 급격히 떨어질 경우 꽃망울이 늦게 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시공초월(時空超越)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

영암 왕인문화 축제 2024

3.28. 목 ~ 3.31. 일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

주최: 영암군 YEONGAM-GUN

주관: 전남문화관광재단 Jeonnam Culture and Tourism Foundation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Jeonnamdo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